

## 나이키社의 DyeCoo 무수 염색기술 이용

나이키는 최초로 상업적인 무수 섬유 염색기계를 개발한 DyeCoo 섬유 시스템社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CO<sub>2</sub>)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염색과정에서 용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수 염색은 나이키의 장기적인 전략과 혁신 및 친환경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 기술은 섬유제조업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염색공장, 섬유제조업체 및 의류 브랜드와 협력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 의류회사는 지난 8년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였고, 용수없이 염색된 직물을 사용하여 첨단 의류를 선보일 것이다.

일반적인 섬유염색은 상당한 용수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섬유 1kg당 약 100~150L의 용수가 사용된다.

업계 분석가들은 2015년까지 3천9백만 톤 이상의 폴리에스터가 매년 염색될 것이라고 추정했고, 나이키는 DyeCoo의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나 "SCF" 이산화탄소 염색기술이 아시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이상 용수의 소비, 에너지 사용, 화학 조제들, 건조 공정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생산 공정은 두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